

# ‘영산강 문화축제’ 동네잔치 전략 우려

〈10.25~28일 나주 금성관 일원〉

오는 10월 25일 개막되는 영산강 문화축제 개최 일정이 도민생활체전 및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과 겹치는데다 5개월이 넘도록 추진위원장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어 ‘동네 잔치’로 전략할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영산강 문화축제는 오는 10월25일부터 4일간 나주 금성관 일원에서 열린다.

그러나 같은 기간 목포에서 전남도 민생활 체육대회가 열리고 제 6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도 24일부터 6일간 산포면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등 지역내 대규모 행사와도 일정이

## 도민생활체전·농업박람회 기간과 겹쳐 5개월 넘도록 추진위원장 선임도 못해

겹치게 됐다.

특히 영산강 문화축제는 이들 행사에 비해 지명도가 낮아 타지역 관광객들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포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는 최대 규모의 농업 행사로 매년 수십만명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으나 이들을 끌어들이는 연계 프로그램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구성됐으나 사의를 표명한 동신대 이근범 전 총장의 후임자 인선도 5개월이 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제 2차 추진위원회도 전체 위원 47명 중 28명만이 참석했으며 부위원장 2명도 불참해 형식적인 보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또한 축제를 이벤트화 하기 위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대부분 단발성 행사에 그쳤던 과거 지역축제의 전형을 영산강 문화축제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도민생활체전 개최 등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이번 축제의 성공 여부에 따라 계약직 직원 문제도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고흥읍~도양읍 확장도로, 21일부터 임시 개통”

고흥읍~도양읍간 4차로 확장 구간이 추석 전 임시 개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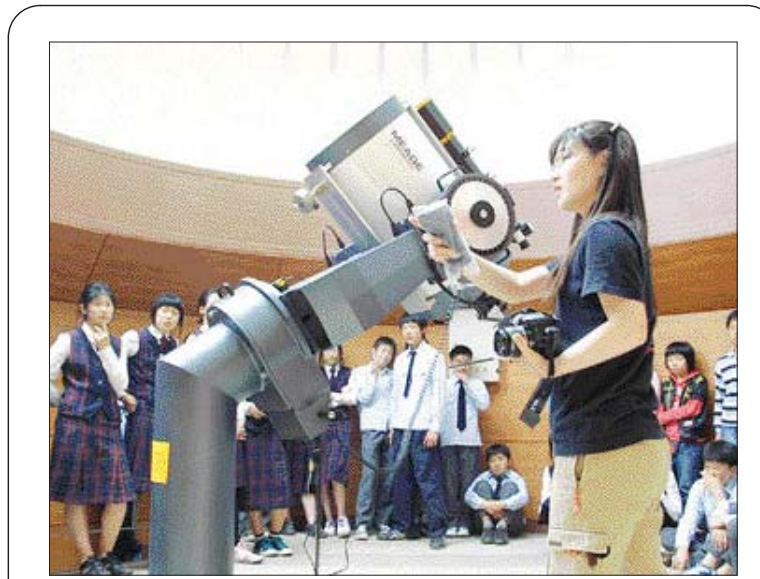
고흥군은 6일 “국도 27호선인 고흥읍에서 도양읍(녹동)까지 연결하는 18.8km를 추석전인 21일 임시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흥~도양간 확장 공사는 지난 2001년 6월 시작됐으며 11월 초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보성군 벌교읍에서 고흥읍까지 36.4km 구간은 지난 2004년 완공됐다. 이번 개통으로 벌교에서 도양까지 55.2km 전 구간의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1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된다.

군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도양읍과 금산면 등지에서 생산된 각종 수산물 등의 물류비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주자중기자 gju@



## “정남진으로 별보러 오세요”

장흥군 정남진 천문과학관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천문동아리를 대상으로 ‘천문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천문과학관은 지난달 30일과 5일 안양중과 장평·용산·대덕 초등학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로켓 조립 및 발사체험, 여름철 별자리 찾기, 천체관측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가졌다.

또 13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천문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장흥지역에는 초·중·고 15개교(290명)에 천문 동아리가 구성돼 있다.

문의(061-860-0651)  
/정흥=김용기기자 kykim@

## 무료 전통혼례 대상자 모집 전남도 농업박물관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이 개관 14주년을 맞아 무료 전통혼례 대상자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전남 지역내 가운데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미뤄온 미혼

동거부부다.

혼례 대상자는 14일까지 개인별 또는 기관 및 사회복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혼례는 22일 박물관 야외전시장 조양(혼례청)에서 문화예술 공연단체인 극단 깃들의 진행으로 길놀이부터 비롯한 흥겨운 공연과 함께 치러진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

## ■ 새얼굴

### “독서·외국어 교육 강화할 것”

#### 배병채 장성군 교육장



“문학 장성의 전통을 계승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배병채(58) 장성교육장은 “튼튼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교육을 바탕으로 기초·기본 학력의 정착 및 독서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곡성 출신인 배 교육장은 경희

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무안 종합고와 고흥농동중 교감, 금산중 교장, 목포교육청 교육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영숙(54)씨와 1녀가 있다. 취미는 등산.

/정성=고재민기자 jbg@



## ‘건강의 섬’ 완도를 브랜드 大賞

완도군의 브랜드 슬로건인 ‘건강의 섬 완도’가 ‘2007 올해의 브랜드 대상’심사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한국소비자 포럼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이번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전국 소비자 130만명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대상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완도군은 지난 2005년 깨끗한 바다 청정 이미지를 담은 ‘건강의 섬 완도’를 브랜드로 개발하고 상표 출원을 마쳤다.

특히 장보고 대사를 다룬 KBS 드라마 ‘해신’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건강의 섬 브랜드가 호평을 받고 있다.

완도군은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광 완도 이미지를 기업과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지난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안군에 대한 전남도 종합 감사가 지역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들은 물론 군민과 출향민에 이르기까지 감사 과정과 결과에 예의 주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민들은 전남도의 이번 감사로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



한달 걸려 각종 축제와 행사를 열어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특히 야간 뱃길 운항과 명문고 육성, 자전거 섬 등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설계를 변경해 각종 공사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특혜 의혹과 열악한 군 재정을 낭비한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 전남도 감사 지켜보는 눈



을 얼마만큼 속 시원하게 파헤칠 수 있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임 군수가 중도 하차했던 만큼 민선 4기에 거는 신안 군민들의 기대는 컸다. 행정 역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박우량 군수가 군정에 새 바람을 불어 넣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군수 취임 직후부터 군청사 신축공사를 중단시키는가 하면 불공정 인사 시비 등이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 출신과 측근 인사들을 중용하고

신안군청 홈페이지에는 전남도 감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는 공무원들의 글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일부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삼급 기관 감사에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거부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전남도 종합감사에 신안군청 공무원들이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내부에서 조차 군정을 불신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조완남 <사회2부·신안주재>

**바다이야기** 자연과 맛의 만남

바다야기 레스토랑

TEL: (062)971-9285

예약전화

바다야기 레스토랑

바다야기 레스토랑

**TEMPIA**

스마트 에어컨

1/3로 줄었다

환경수형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TEL: 955-4222-000-701-7117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스프링롤러, 연료분무기, 선풍기, 파종기, 모내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소경기, 소경기, 소경기, 소경기

TEL: (062)383-4800

삼아상경